

조선시대 불화에 사용 된 채색안료

고수린, 203호 불교회화실 18:00~18:30

화려한 색상으로 채색 된 서화 유물을 볼 때면 과거 우리 조상들은 어떤 재료를 사용한 것 일까 궁금해집니다. 먼 옛날에는 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재료의 양이 적을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졌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색 재료들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천연 재료에만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다채로운 색상의 안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합성 안료는 대체적으로 천연 무기안료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거나 사용방법이 간편합니다. 또한, 값 비싼 천연 안료의 대체품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료들의 종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재료를 구성하는 성분을 알기 위해서 유물에서 탈락한 편片들을 사용하거나 미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엑스선형광분석법(XRF: X-Ray Fluorescence)으로 파괴하지 않고도 대상을 분석합니다. 이는 엑스선을 유물에 조사照射하여 그 때 방출되는 물체 고유의 형광과장을 분석하여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내는 분석법입니다. 또한 포인트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초분광(HSI: Hyper Spectral Imaging)장비를 사용하여 화폭 전체를 원하는 파장대별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장 정보를 활용하면 염료와 안료를 분류할 수 있고 같은 계열의 색상도 구성 성분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여 엑스선형광분석 전에 사전 조사의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이렇게 분석한 안료들의 정보는 보존처리나 유물의 모사 등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용 시기가 기록된 특정 안료들이나 합성 시기가 밝혀진 합성 안료의 검출을 통하여 유물의 제작 시기 등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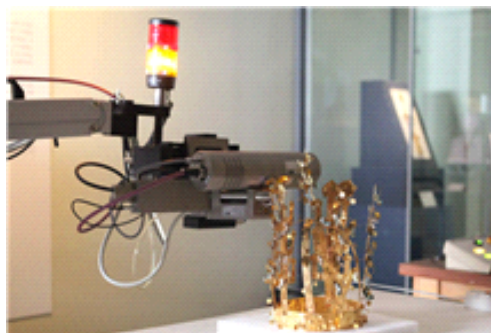


그림 1. 엑스선형광분석(XR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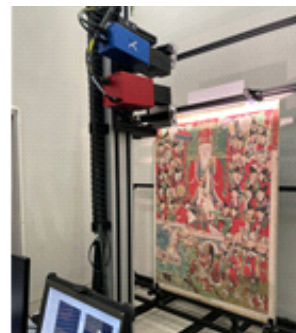


그림 2. 초분광

제74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18일)

일본의 근대 조각과 공예

김승익, 310호 일본실 18:00~18:30

일본에서 ‘미술美術’ 개념이 번역어으로써 메이지시기에 새롭게 탄생했지만, ‘조각彫刻’이라는 용어는 새김이라는이라는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서양의 Sculpture의 개념으로 조각이라는 용어가 정착된 시기는 1876년(메이지 9)에 최초의 관립미술학교인 고부미술학교[工部美術學校]에 회화과繪畫科와 함께 조각학과彫刻學科가 설립되고 이탈리아에 교사를 초빙하여 서양의 조소彫塑 기법을 가르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사찰을 조각으로 장식하는 불사佛師들이 있었고, 석공石工, 인형제작자[人形師]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있었지만, 유토油土나 점토粘土 등 흙을 빚어 원형을 만들어가는 조소기법이 도입되고 점차 새로운 시대의 미감 표현하면서 조각은 순수미술의 한 장르로 확장되었습니다. 에도시대 불사 전통을 계승했던 다카무라 고운[高村光雲,

1852~1934]은 기존 장인들의 작업방식에서 벗어나 사실성에 기반한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면서 일본 근대조각의 선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조각과 더불어 공예 역시 ‘미술’ 개념의 정착 과정에서 새로운 위상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요코하마와 같은 개항장에서 일본 공예품들은 외국인에게 파는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았고, 1873년 비엔나 세계박람회 참가 이후 일본의 수출 공예품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메이지 시기 동안 공예는 산업품으로써 인정되면서 한동안 순수미술의 한 장르로 포섭되지 못했지만 1920년대 이후 제국미술전람회에서 공예부가 신설되고 아르데코[Art Deco]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 등 서양 미술 양식을 수용하여 순수미술품으로써 공예의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림. 다카무라 고운, <기예천(伎藝天)>, 1920년대 후반 이후, 근대128



제74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18일)

백제의 철과 대외교류

이동관, 106호 백제실 19:00~19:30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神功紀」나 칠지도七支刀의 명문 등 문자자료로 볼 때 늦어도 4세기 대에는 이미 백제와 왜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 금속기 등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백제와 왜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다고 하는 6세기 이후에야 장식대도를 비롯한 위신재 일부에서 그 양상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京都府 椿井大塚山(츠바이오즈카야)고분古墳에서는 삼각연신수경 34점과 함께 소환두대도, 소칼혁결주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철제농공구류는 철부 10점, 살포 1점, 이형철제품 20점 등이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약 24cm 전후의 비교적 대형 이형판상철부로 모두 3점입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이 철정들이 椿井大塚山 출토 판상철부의 개조되지 않은 원형부와 형태나 규격에서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이동관 2016). 따라서 椿井大塚山고분에 부장된 이형판상철부가 한반도의 탄금대형 철정이 반입된 결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청주 신봉동 등에 유사한 예가 있는 살포의 존재(이동관 2010)와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椿井大塚山古墳에서 다량의 삼각연신수경이 출토된 이래, 그 연구의 방향은 주로 중국대륙을 향해왔습니다. 이는 239년 卑弥呼가 위魏에 조공하고 동경 100매를 하사 받았다는 문헌기록을 비롯하여 중국대륙과 통교한 문헌 기록의 위력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경향으로 인하여 소환두대도, 철제농공구류 들도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막연히 중국 반입품일 가능성을 높게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하였듯 철제농공구, 특히 이형판상철부와 살포 등이 중원지역을 통하여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고분시대 전기가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본고에서 언급한 교토 후 츠바이오즈카야마 이외에도 나라현 メスリ山고분, 호케노야마고분, 효고현 니시모토메즈카고분 등 기나이지역을 중심으로 고분에서 다량의 철제품들이 부장된다는 점입니다.

야요이시대 후기까지 철소재의 입수가 영남지역과 북부규슈라는 전통적인 교역루트로 한정되어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일본열도는 한반도 중원지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철 소재의 입수처를 다변화할 수 있었고 이것이 고분시대 전기 고분의 철기 다량 부장의 결과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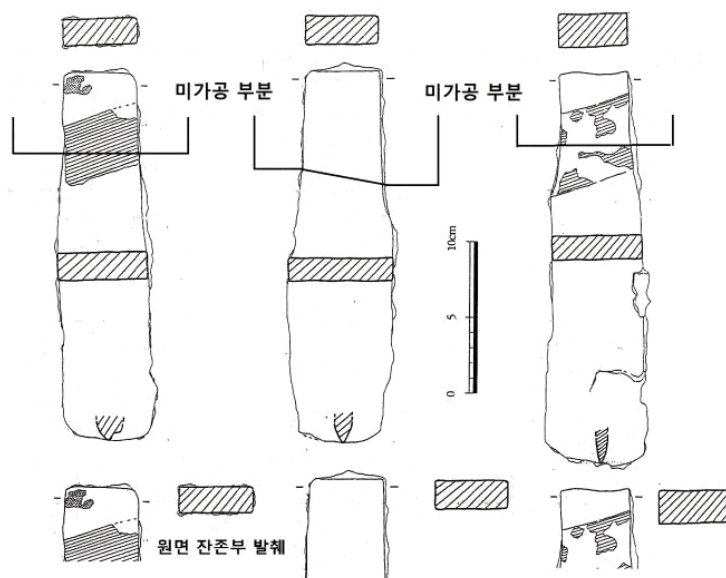
그림1. 살포, 츠바이오즈카야마, 고분시대 전기, 교토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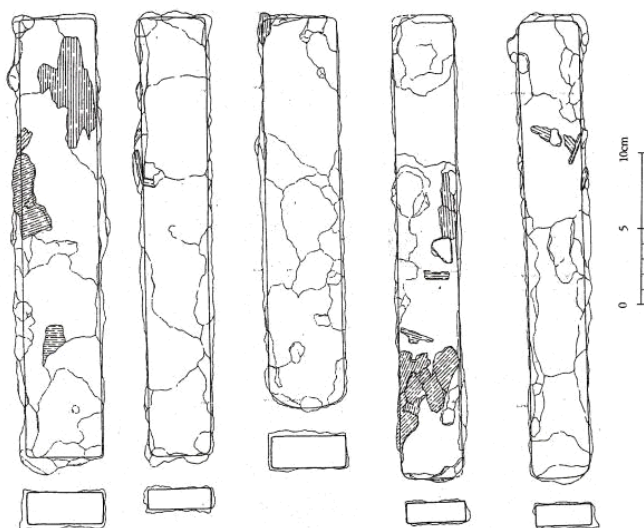
그림2. 이형철부, 츠바이오즈카야마, 고분시대 전기, 교토대학



그림3. 탄금대형철정, 충주 탄금대, 삼국, 국립청주박물관



樺井大塚山古墳 출토 이형판상철부 (필자 재실측 및 제도)



탄금대 토성 출토 철정



제74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0월 18일)

조선의 인쇄문화

김진실, 118호 조선2실 19:00~19:30

현재에서 시기적으로 가까운 조선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 물질문화가 풍부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책은 조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조선실에는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조선실에서 다양한 책들과 그 책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을 흔히 ‘기록의 나라’ 라고도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조선왕조실록』, 『의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을 정도로 기록의 연속성, 풍부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개인과 가문의 기록을 문집형태로 엮어 간행했는데, 그 수와 양이 방대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책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서적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필사筆寫, 목판인쇄, 활자 인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필사는 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내용을 베껴 쓴 뒤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예는 현재 조선실에서 전시 중인 『외규장각 의례』입니다. 외규장각 의례는 대부분 왕이 보던 어람용御覽用으로 제작되었고, 글자를 전문으로 쓰던 사자관寫字官의 정성스러운 필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목판인쇄는 동일한 내용의 책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데 적합한 인쇄방식입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목판을 보면 예술성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의 서체를 모각하여 만들기도 했습니다. 『용비어천가』, 『국조보감』 등 왕실에서 펴낸 서적들 중에는 목판본도 많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자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목활자 30만 여자, 금속활자 50만 여자가 소장되어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선 왕실에서 관리하던 것입니다. 조선은 태종대부터 금속활자를 주조했습니다. 세종대 주조한 갑인자甲寅字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6번 주조되었을 정도로 조선의 대표적인 활자체입니다. 조선후기에는 임진자壬辰字, 한구자韓構字, 정리자整理字, 실록자實錄字 등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금속활자들을 활용하여 서적을 찍어냈습니다.